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김 혜 인*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박사과정)

이 승 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과시소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현상은 성인 소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생활을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은 물질적인 것에 강한 집착과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인기 연예인이나 상류 계층의 과시소비 풍조를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며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소비자를 위한 학교에서의 올바른 소비자교육 실행이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범적인 소비행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청소년의 소비성향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청소년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고 과시소비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의 지침을 제공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세 가지로

<연구문제 1>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 성향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은 제 변수(사회경제적 변수, 소비자 교육 관련변수, 사회환경변수, 물질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 성향에 대한 제 변수(사회경제적 변수, 소비자 교육 관련 변수, 사회환경변수, 물질주의 성향)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와 통영시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2월 12일, 설문지를 1000부 배부하여 890부를 회수, 644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t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성별, 학년, 월가계소득, 월평균 용돈, 어머니의 연령, 거주지역, 소비자교육 등의 변수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과시소비성향이 높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과시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가계소득의 경우, 601만원 이상의 가계가 200만원 이하의 가계보다 과시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은 40대 이하보다 41세 이상인 집단이, 지역의 경우는 통영보다 강남이나 강북에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소비자에게 있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친구나 연예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생에게 유효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고 성인소비자의 모범적인 소비행동 모델이 요구된다.